

박호동/정영아의 필리핀 이야기 6 (2023-05-22)

1. 영어 성경방 이야기

13주간의 영어 성경방(구약방)을 힘겹게 마쳤다. 3달이 넘게 온통 내 생활을 삼킬 듯 하였지만 덕분에 구약 전체를 영어로 강의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성실히 겸손히 따라와 준 필리핀 목사님들께 감사한 마음 가득이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배우는지 강의 중 보여주는 슬라이드 자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앞쪽으로 나와서 TV화면을 폰카메라로 찍는다.

더 많은 목사들을 델고 올 기세이니 신약방을 안할 수도 없고... 고민 끝에 신약방은 "팀티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의 영어 강사팀 몇 분과 함께 짐을 나누어 지기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를 섞어서 7월부터 다채로운 신약방이 전개될 요량이다.

나는 이곳에서 내가 <어 성경이 읽어지네>강사로 필리핀 현지인 목사님들을 섬기게 될 줄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을 언제 어디로 이끄실지... 참으로 무섭고도 놀랍다. 우리가 준비되고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일하신다고 믿는다.

2. 찬양인도를 시작하다.

두리안 과일을 먹겠다며 설쳐대다가 깊게 다친 손가락이 하필 왼손 두 번째 녀석이라 무려 넉달동안 기타를 치질 못했는데 지난 4월 말부터 드디어 기타를 잡았다. 조근묵 선교사님으로부터 최근 완공된 말루빠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열린 예배 형태의 예배순

서에서 20분 남짓 찬양을 인도해야 하는데... 전에 반주만 하던 것과는 다르다.

대학 시절 캠퍼스에서 기타 들고 댕기며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지만 그게 언제적 얘기냐... 40년도 더 된 시절 아닌가? 요즘의 기독교 음악이란 것이 그 때과는 달라도 많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일찌감치 중직자인양 어른짓하던 내가 회중 앞에서 기타를 칠 일이 무에 있었겠는가? 여기 선교지에서는 모두가 사역자요 전사이다. 예순이 넘었는데... 이딴 나이생각 할 필요도 없다. 까라면 까는 거다.

영어찬양과 필리핀 찬양곡을 섞어 여덟곡 정도 콘티를 짜고, 싱어들과 반주자용 악보를 만들고, 회중을 위한 피피티 파일까지 만들고는, 죽어라고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게 장난이 아니다. 아직 손가락도 완쾌된 게 아닌데... 제법 아파다...

아직 풀랑 다섯 번 밖에 안했지만, 드림교회 찬양사역자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던지... 땀이 비오듯 흐르는데 닭을 손이 없다. 손이 한 개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다.

3. 그린메도우 청소년들...

8개의 캠프 교회 중 여섯 번째 개척된 교회가 그린메도우 교회이다. 그린메도우(푸른 초장)라는 이름에는 덜 맞지만, 대나무 숲이 휘청 늘어진 마당 한켠에서 모이는데, 건물 조차 하나 없는 대숲그늘, 바둑이들과 꼬꼬 닭들이 왔다갔다하는 교회이지만 우리 부부에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교회이다. 이곳 청소년들 때문이다.

강변에 개척된 다른 일곱 교회와는 달리

이 교회는 대로변 안쪽 아주 허름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의외로 청소년들이 제법 참석하고 있다. 크지 않은 마당 한켠에서는 15~20명 어른들이 존 목사님의 설교를, 40~50명 꼬마 아이들은 초나 사모님과 함께 유년주일학교 풍경이, 그리고 닭장 옆 한쪽 구석에서는 내가 12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영어성경 암송을 한다.

네비게이트 암송코스 12구절을 함께 외고 시험도 치르고 출석점수와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시상식도 갖는데 이 청소년들(중, 고, 대학생)이 열정이 장난이 아니다. 심비에 새겨진 말씀이 이들을 성장케하고 견고한 주의 제자로 세워갈 것을 믿는다. 암송에 참석한 아이들 12명 중 10명이 지난 주에 세례를 다 받았다. 복음을 주제로 한 12구절 암송이 얼마나 이들을 명확하게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세워주고 있는지... 거저 감사가 넘친다.

개강, 종강, 방학을 반복하며 두 학기를 지나니 정도 깊어져, 여학생 중 몇은 내 아내 정영아선교사를 엄마라 부르며 잘 따른다. 우린 힐끗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니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배우며 하나님 사랑을 인식할 것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해주소서...

4. 세례식

지난 5월20일(토) 세례식을 가졌다. 이번에는 3개 캠프교회에서 30명의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았다. 11월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2~3개월동안 매 주일 세례 대상자들에게 복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을 반복하며 준비하였다. 우리 <Way Maker Mission> 사역의 열매는 뭐니해도 구원받는

영혼이 아닌가. 더구나 내일의 소망을 던져주는 젊은 영혼이 서른 명이나 결실을 거두니 할렐루야, 할렐루야이다 !!

이곳 여덟 개 캠프교회에는 어느 곳이나 다 어른 숫자 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두배 이상 많다. 생각해보니 한국도 내 어릴 적과 커가던 시절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아... 한국 교회를 향한 슬픈 마음이 또 다시 물려온다. 주님 우리 조국 교회에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소서...

파송교회에서 특별히 지원해준 경비로 작은 수영장 하나를 임대하고, 수송, 식사, 축하선물, 사진액자 등을 감당하였는데 우리 사역에 든든한 뒷배를 봐 주시는 파송 교회에 감사의 마음 가득이다.

5. 이런 저런 이바구

1) 파송교회에서 이쁜 집사님 한 분이 1주간 다녀가셨다. 정영아 선교사가 주일학교 부감이다 부장이다 섬길 적에 가까이서 많이 도움주시던 분이신데 씩씩하게 닳새를 짊어 내어 오셨다. 세례식 사진도 찍어주고 커피노 가정을 심방하여 집안 대청소를 넘어 장판을 통째로 바꾸어주는 환경개선 봉사까지 감당해주셨는데... 참 좋다. 모교회에서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면 좋겠다.

2) 3월~5월. 참 덥다. 별에 나가면 얼굴이 따갑다. 빨리 우기가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비 맞으면 덥지는 않을테니까...